

남자들이 낙태를 위해 병원에 갈 때

윤 대영(서강대 동아연구소, 조교수)

작성일: 2012년 7월 9일

■ 개관

-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낙태
 -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베트남에서 흔한 경우가 되었음.
 - 다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라는 사실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음.
 - 이 남성들을 둘러싼 사연이 이번 이슈분석의 주된 내용

■ 하노이의 어떤 산부인과

- 수술실 입구의 남성들
 - 오전 8시, 하노이 산과(産科)병원 B2 건물에 위치한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남성들
 - 자신의 애인이나 누이 혹은 여동생을 데리고 온 이들의 모습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함.
 - 이러한 ‘부동자세(motionlessness)’ 는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.
- 수술실
 - 낙태를 하는 수술실은 불임 상담을 하는 방과 마주보고 있음.
 - 기발하게도 한 곳은 예상치 못한 아기들을 포기해 버리는 방이고, 맞은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상담하는 방임.
- 남성들의 행동 방식
 - 이러한 공간 배치는 과연 병원의 의도적인 생각?
 - 하지만 낙태를 위해 온 사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음.
 - 애인, 아내 혹은 누이 혹은 여동생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, 아니면 큰 소리로 통화할 뿐임.
- 은밀한 수술?
 - 수술실의 문은 천으로 된 커튼으로 덮여 있음.
 -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술집기의 소리, 임산부의 신음 소리 그리고 환자들을 달래는 의사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.
 - 15분마다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양철로 된 바구니를 들고 나옴.
 - 가끔 창백한 표정으로 수술실을 나오는 여성들은 눈물이 그렇그렇 함.
 - 수술실 밖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을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음.

- 어떤 남녀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
 - o 20세가량의 젊은 남성과 임신 2개월의 여성
 - o 여성을 안심시키는 남성
 - o 이 여성은 이 남성의 아내나 여자 친구도 아닌, 그냥 “채소”
 - o “채소” 라는 말은 남성이 단지 성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 호텔에서 가끔씩 만나는 여성을 이르는 말
- “채소들”
 - o 애인이 없는 싱글 청년들은 보통 창녀들과 섹스를 함.
 - o 그러나 성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창녀들과 많은 감정을 공유하지는 못함.
 - o 그래서 쉬운 여자들을 찾는 것이 선호됨.
 - o 창녀들은 “더러운 채소” 라 불리고 쉬운 여자들은 “안전한 채소” 라고 불림.
 - o 이러한 “채소들” 이 임신하는 경우가 있게 됨.
- “채소” 에 대한 불문율
 - o “채소” 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문율이 있음.
 - o “채소” 를 임신시킨 그 사람이 낙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.
 - o 그런데 태아의 아버지는 누구?
 - o “채소” 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갖은 남자

■ 위험한 ‘부동자세’

- 과거
 - o 싱글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인식이 좋지 않았음.
 - o 그래서 임신 사실을 되도록 숨기면서 낙태를 시켰음.
- 현재
 - o 최근에는 사람들이 뻘뻘해짐.
 - o 남성들이 낙태를 시키기 위해 애인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사소한 실수로 받아들임.
- 사례1
 - o 하노이 베트남-독일 고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이 교복을 착용한 같은 반 여학생을 낙태시키기 위해 하노이 산과병원을 방문
 - o 이 여학생은 진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독하게 뿌린 상태
 - o 이 남학생의 말 -> 이 병원의 수술비는 매우 비쌌(50USD). 지난 번 다른 병원에서는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음.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하게 될 것임.
- 사례2
 - o 애인과 세 번째로 병원을 찾은 ‘썬’ 이라는 남성과의 인터뷰
 - o 이 애인이 미래에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질문을 함
 - o 이 남성의 대답 -> 친구들 중에는 이미 네 번 낙태를 시키고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음. 어쨌든 우리들은 결혼하지 않을 것임. 그녀가 걱정하지 않는데 왜 내가 걱정해야 하나?
- 사례3

- 친한 친구의 여동생(직업훈련학교 학생)과 함께 온 어떤 남성
- 그녀는 이번이 세 번째 낙태 수술
- 이전 두 번의 경우 태아의 아빠가 모두 달랐음.
- 오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무서워한 여동생은 오빠의 친구에게 그 때마다 부탁을 하게 된 것임.

■ 관련 통계

- 최근, 베트남 가족계획협회의 통계 분석
 - 15-19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균 300,0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음.
 - 이 여성들 중 60-70%는 학생
 - 하노이 인구의 30%를 차지하는 이 젊은이들 -> 낙태의 22% 이상을 차지
 - 그래서 베트남이 10대 낙태율에서 동남아시아에서는 1위, 세계적으로는 5위를 차지
- 하노이 산과병원 의사의 증언
 - 하루 십 여건의 낙태 수술 실시
 - 그 중 20%는 학생들
 - 낙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건 이미 과거의 일

■ 총평

- 개방/개혁 이후의 성문화 개방
 - 개방/개혁 이후의 성문화 개방은 베트남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음.
 - 그런데 특히 젊은 층의 성문화 개방 확산속도는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.
- 성문화 개방과 낙태
 - 성문화 개방 현상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자유로운 연애 풍조가 공산정권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잠시 잠복되어 있다가 재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.
 - 다만 성문화 개방에 따르는 남녀의 책임 의식과 무분별한 낙태는 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 - 이러한 책임 의식은 아동기부터 공공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.
 - 특히 임신과 낙태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은 향후 부모로서의 역할과도 연계하여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.

※ 참고자료

- When men go to hospital for abortion (출처 : <http://english.vietnamnet.vn/en/special-report/24474/when-men-go-to-hospital-for-abortion.html>) 2012/05/27
- Miss. abortion clinic owner: 'business as usual' (출처 : <http://www.kfvs12.com/story/18934036/miss-abortion-clinic-owner-business-as-usual>)

- More to Demand: Abortion in Vietnam (출처 : http://www.isiswomen.org/index.php?option=com_content&task=view&id=1137&Itemid=200) 2008/11/19